

광희, 오늘 입대...군악병으로 복무 예정
 방송인 광희가 13일 입대한다. 광희는 이날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5주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군악병으로 현역 복무할 예정이다. 광희는 1월 스포츠동아 보도를 통해 입대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이날 광희는 별다른 공식 인사 없이 입소할 계획이다.



촛불...탄핵...대선...세상을 담은 영화들

'특별시민' 정치인선거 추악한 이면 담아 6월항쟁 '1987', 5·18 다룬 '택시운전사' 국민의 힘 다룬 영화...촛불 의미 반추 국정농단 소재 '게이트'도 촬영 준비중

영화가 세상을 담아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지난해 촉발된 국정농단 사태와 이어진 촛불집회를 지나 이제 관심은 5월 대선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판도라'와 올해 1월 '더킹' 등 시국을 반영한 이야기로 주목받은 영화에 이어 촛불과 탄핵, 대선 등 이슈를 그려내는 영화가 잇따라 관객을 찾는다. 직접적이거나 풍자적이다.

대통령 탄핵 이후 관심은 새 대통령 선거다. 5월로 접어드는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치열한 선거전을 그리는 영화 '특별시민'(감독 박인제·제작 팔레트픽처스)이 개봉한다. 3선에 도전하는 서울시장이 노련하게 여론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은 작품. 불법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통해 정치인 선거의 이면을 리얼하게 그린다. 특히 최근 선거전에 빠질 수 없는 포털사이트와 SNS를 활용한 여론몰이의 과정도 실감나게 펼쳐진다. 주인공 최민식은 "정치인의 권력을 향한 욕망과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한 용의주도함, 추진력을 바탕으로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모습을 그리고자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힘을 그리는 김윤석·하정우 주연의 영화 '1987'(감독 장준환·제작 우정필름)도



현실을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영화가 잇따라 선보인다. 사진은 '특별시민'(왼쪽)과 '택시운전사'.

사진제공 | 팔레트픽처스·더팩트

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영화는 1987년 6월 민주화항쟁 소재다. 시나리오에는 각 주인공의 이름이 당대 활동한 정치인과 학생운동가의 실명으로 집필돼 있을 만큼 영화는 전적으로 실화에 바탕을 뒀다. 시민의 힘으로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낸 과정을 통해 2017년 현재를 반추하게 한다.

비슷한 메시지의 영화는 더 있다. 여름 개봉을 준비하는 송강호 주연의 '택시운전사'(감독 장훈·제작 영화사랩스), 이정재의 '대립군'(감독 정윤철·제작 리얼라이즈픽처스)이다. 각각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임진왜란을 소재 삼아 국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꾼 이야기를 펼친다. 이에 더해 국정농단 사태를 담아내는 영화

도 있다. '게이트'이다. 영화사 토르컴퍼니는 국정농단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관련 사실을 알렸다. 비선실세를 수사하던 엘리트 검사가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은 뒤 겪는 이야기로, 블랙 코미디 장르다. 연출은 '치외법권'의 신동엽 감독이 맡고, 배우 임창정이 주연으로 나서 촬영 준비에 한창이다.

이해리 기자 goll1024@donga.com

탄핵이 빛은 걸스데이 '웃픈 주말'

현재 선고 직후 '여자대통령' 멜론 1위 "키스하면 잡혀가나" 노랫말 패러디도

지난 주말 걸스데이가 옛 노래로 음악사이트에서 화제의 주인공이 됐다. 서울 광화문 광장 촛불집회에서 불린 소녀시대의 노래 등도 다시 음원 차트에 등장했다. 모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 빛어낸 풍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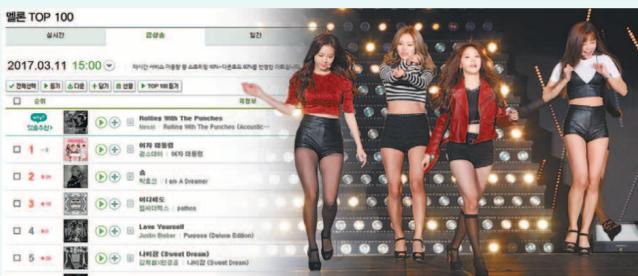
27일 미니앨범 발표를 앞둔 걸스데이는 2013년 노래 '여자대통령'으로 10일 헌법재판소의 선고 직후 음악사이트 멜론 금상송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 이틀남은 11일 오후 4시까지도 1위를 지켰다.

'금상송 차트'는 매 시간 순위가 급변하고 등락의 폭도 크다는 특징이 있지만 특정한

노래가 하루가 지나도록 1위를 지킨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미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여자가 먼저 키스 하면 잡혀가는 건가'라는 '여자대통령'의 노랫말이 현재의 결정과 관련해 '우리나라 대통령도 잡혀가는 건가'라는 패러디물로 온라인에 등장했다.

'여자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하던 해인 2013년 6월 걸스데이가 발표한 1집 리패키지 앨범 타이틀곡, 1집 타이틀곡 '기대해'에 이어 히트하면서 걸스데이는 정상급 반열에 올랐다. 노랫말은 '사랑하는 남자에게 당당하게 다가가겠다'는 내용이다.

신곡 발표를 앞두고 다양한 티저 콘텐츠로 대중의 관심을 끌어 모으려 노력하는 마케팅의 관점에서만 보면 걸스데이는 상당한 홍보 효과를 누린 셈이다. 하지만 마냥 좋아할 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현재의 탄핵 인용 결정 직후 걸스데이의 '여자대통령'이 음원차트 1위에 오르는 현상이 벌어졌다.

사진출처 | 멜론사이트 캡처

없다는 '웃픈' 표정이다. 드림티엔터테인먼트 측은 '여자대통령'이 주목받는 현상에 조심스러운 듯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오랜만에 음반을 내놓는데 좋은 무대를 위해 준비에 전념할 뿐"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직후 멜론 금상송 차트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와 몰드

플레이의 '비바 라 비다'도 2~3위에 올랐다. '다시 만난 세계'는 작년 여름 이화여대 학내 사태에서 학생들이 부른 이후 광화문 촛불집회에서도 불렀다. '비바 라 비다'는 '인생 만세'라는 스페인어로, 권력에서 밀려난 왕의 비참한 최후를 다루고 있다.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몬스터 유니온' 시작부터 뼈적

'상식의 나라' 기초캐스팅도 안돼 5월 편성 계획, 하반기로 미뤄져

KBS가 설립한 방송콘텐츠 제작사 몬스터 유니온이 첫 작품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몬스터 유니온은 지난해 8월 KBS가 KBS미디어, KBS N과 공동출자해 세운 제작사로, 드라마 '상식의 나라'를 첫 작품으로 선택했다. 하지만 제작 과정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예정됐던 5월 편성이 하반기로 미뤄졌다.

12일 한 방송관계자에 따르면 '상식의 나라' 측은 이미 3명의 스태프 남성 연기자들에게 출연을 제의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당초 계획했던 5월 방송을 앞두고 가장 기초적인 캐스팅과 정부터 난항을 겪은 것이다. 이로 인해 KBS 측은 이 기간에 방송할 대체 드라마를 찾는 데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식의 나라'는 외교통신부 문화외교국의 서기관이 향후 외교관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남자주인공이 극의 중심을 이끌 만큼 비중이 크지만 방송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몬스터 유니온은 설립 초기부터 한국드라마 제작사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독립PD협회 등 외주방송단체들이 "일부 제작사들의 설 자리를 뺏는 방송사의 몸집 부풀리기"라는 반대 목소리에 부딪혔다. 지난해 인기를 모은 '태양의 후예'에 버금가는 작품을 더욱 체계적으로 제작하겠다는 취지는 첫 단추부터 어긋난 모양새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몬스터 유니온은 설립 초기부터 중소규모 제작사들의 반발을 낳으며 첫 결과물에 대한 이목을 집중시켰다"면서 "현재 상황을 방송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해결해나갈지도 관심거리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연예뉴스 스테이션

'프로듀스 101' 출연자 과거 행적 논란

케이블채널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가 4월 방송을 앞두고 출연자의 과거 행적과 관련한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한 누리꾼은 SNS를 통해 '프로듀스 101' 시즌2의 한 출연자를 지목하며 과거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해당 출연자의 초등학교 졸업 사진 등도 공개했다. 12일 현재 관련 내용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프로그램 제작진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걸그룹 AOA 데뷔 첫 단독콘서트 성료



AOA

걸그룹 AOA가 데뷔 5년 만에 첫 단독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AOA는 11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콘서트 '에이스 오브 엔젤스'(ACE OF ANGELS)를 펼쳤다. 이들은 '심쿵해' '단발머리' '굿럭' 등 히트곡을 포함한 150분간 27곡을 선보였다. 또 각 멤버들의 개성이 빛나는 개별 무대로 팬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AOA 멤버들은 눈물을 흘리며 팬들과 공연을 마무리했다. 이들은 1월 첫 정규 앨범 '엔젤스노크'를 내놓고 더블 타이틀곡 '익스큐즈 미'와 '빙빙'으로 최근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김희선·김선아 드라마'가 표류?

사전제작 '...그녀' 방송사 편성 못잡아 완성도 논란 속 제작사 '현재 논의중'

김희선·김선아 주연의 드라마 '품위있는 그녀'가 방송사 편성을 확정하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드라마는 사전제작으로 지난해 10월 첫 촬영을 시작해 지난달 23일 모든 일정을 끝마쳤지만, 12일 현재까지 방송사와 방송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드라마는 한 중편재널과 편성을 논의해왔지만 여의치 않았다. 뒤이어 한 지상파 채널과도 방송일을 두고 협의해왔다.

사전제작으로 만들어진 드라마가 방송사의 편성을 받지 못한 것은 처음이어서 방송사 안팎에서는 완성도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제작사 제이에스퍼처스 측은 "현재 한 중편재널 및 케이بل채널과 편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품위있는 그녀'는 김희선과 김선아가 투톱 주연으로 나선다. 또 김선아를 흥행 배우의 반



'품위있는 그녀'의 김희선(왼쪽)·김선아

열에 올려놓은 2005년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의 김윤철 PD와 다시 만나 화제를 모은 작품이다.

드라마는 호화로운 삶을 즐기던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몰락과 남편의 배신으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는 이야기로, 코미디물이다. 극중 김희선은 준 재벌가의 며느리 우아인 역을, 김선아는 상류사회로 진입하겠다는 꿈을 품고 사는 충청도 출신 영양사 박복자 역을 맡았다. 어느덧 40대가 된 두 스타의 몸을 사리지 않는 코믹 연기가 불 만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도깨비' 5인방 다시 뭉친다

내일 감독판 DVD·블루레이 제작 참여 2개월만의 만남...제작 후일담 등 공개

드라마 '도깨비'의 흥행 주역들이 다시 만난다.

연기자 공유, 이동욱, 김고은, 유인나, 육성재 등 주인공 5인방은 14일 오전 서울의 한 녹음실에 모여 드라마 감독판 DVD와 블루레이 제작을 위한 코멘터리 녹음에 참여한다. 대본을 쓴 김은숙 작가와 연출가 이응복 PD도 참석해 드라마 제작에 얽힌 후일담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들이 한 자리에 다시 모이는 것은 드라마 종영 후 2개월여 만이다. 이날 DVD와 블루레이 등 코멘터리와 인터뷰 등을 진행한 뒤 간단한 회포도 푼다. 한 관계자는 12일 "이들은 종영 후 각기 바쁜 스케줄로 포상휴가도 떠나지 못했다. 어렵게 스케줄을 조율해 만나는 만큼 이날 오전부터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깨비' 감독판 DVD와 블루레이 제작은 이례적으로 드라마 방송 도중 열혈 팬들의 요청에 따라 결정됐다. 팬들이 직접 유통사와 접



'도깨비'의 이동욱·유인나·육성재·공유·김고은.(왼쪽부터)

촉하는 등 제작 추진 과정이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아 화제를 모았다.

이후에도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자 2월 말 한 인터넷서점 사이트는 '도깨비' DVD와 블루레이 전담 고객센터까지 따로 만들어 사전 판매를 시작했다. 회원수 2만1000명을 넘은 '도깨비' 감독판 DVD와 블루레이 추진 인터넷 카페는 2차 구매 요청을 받고 있다.

한편 12일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가드홀에서 열린 이동욱의 팬미팅에 공유가 게스트로 참석해 자리를 빛내 눈길을 모았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영화 랭킹

자료:영화진흥위원회 3월 5일~3월 11일 1위 영화 정보보기

순위	영화	누적관객	개봉일
1	로건	1,625,926	03/01
2	콩: 스컬 아일랜드	674,462	03/08
3	해빙	1,100,031	03/01
4	23 아이덴티티	1,623,341	02/22
5	재심	2,356,054	02/15
6	라라랜드	3,401,305	12/07
7	문라이트	134,598	02/22
8	눈길	113,795	03/01
9	트롤	656,884	02/16
10	사일런스	71,986	02/28

편집 | 최해경·유진한 기자